김제시, 공무원시험준비반 탁월한 운영 관리 쾌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의 탁월한 운영 관리로 22년 하반기 시작에 총 34명의 공무원 합격예보 쾌거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2022년도에 실시한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총 34명의 합격자(예정)를 배출해 냈다. 지난 7월 8일에 발표한 지방직공무원 제1차 필기시험에 26명 합격하였다.

또한 지난 4월 30일 간호직 시험과 4월 2일 국가직 시험에서 8명은 최종합격 통보되어 총 34명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7월 하순에 합격예정자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3명을 합치면 37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 대비 수강생 합격률은 응시인원 기준 89명이 응시하여 34명이 필기시험 합격함에 따라 38%를 자랑하고 있는데, 운영 첫해 2019년 11명, 2020년 23명, 2021년 29명의 최종 합격자 배출에 이어서 금년에도 큰 성과를 보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로 운영 4년 차에 접어든 공무원시험준비반에서 올해 큰 경사가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 마령면 재경군민회, 후원금 300만원 기탁

진안군 마령면(면장 정상식)은 재경진안군민회(회장 전승현)는 11일 이웃돕기에 써달라며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0일 마령면 체련공원에서 열린 재경진안군민회 현지이사회 및 천렵행사를 통해 열렸다.

전승현 회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고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와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식 면장은 "고향을 찾아 뜻깊은 행사를 하며 후원금까지 기탁해 주신 재경진안군민회에 감사드리며 면민들의 욕구를 반영해 후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령면은 전달된 후원금 3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마령면 복지허브화사업에 지정 기탁하고, 마령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의 맞춤형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성광교회, 설립 70주년 성금 2100만원 기탁

군산시는 군산성광교회(담임목사 차상영)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2,100만원을 지난 10일 기부했다고 밝혔다.

군산성광교회는 1952년에 설립되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성금을 마련했고, 소룡동 저소득 40세대와 월명동 저소득 30세대에 지정기탁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차상영 담임목사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셨다"며, "이번 성금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군산성광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인 사

전북도청

◇2급(실장급) 전보 ▲도민안전실장 김인태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 ▲전북도의회 전출 김양원

◇3급(국장급) 전보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4급(과장급) 전보 ▲사회재난과장 이성호 ▲특별사법경찰과장 신병기 ▲축산과장 박태욱 ▲동물방역과장 이희선 ▲환경보전과장 전경식 ▲자연생태과장 한순옥 ▲주택건축과장 설상희 ▲정무기획과장 박현규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김성명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이주철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강경덕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문은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효 ▲도립국악원장 이희성 ▲전북도의회 전출 곽효승

◇시·군 부단체장 ▲완주 부군수 문성철 ▲장수 부군수 이종훈 ▲순창 부군수 정화영 ▲고창 부군수 노형수

"진정한 나눔 정신으로 사회봉사 앞장"

전주남 로타리클럽 김형권 회장 취임

전주남 로타리클럽은 탁제호 35대 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36대 회장에 김형권 회장이 취임했다.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형권 회장은 2022~23년도에는 전주남 로타리클럽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며 특히, 공공 이미지 사업과 인도적 봉사, 베트남 구순 구계열 수술봉사, 재단 기부 및 멤버십에 중점을 두어 클럽을 성장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상상하라 로타리'라는 국제로타리 테마 아래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함께하는 전주남 로타리클럽을 만들어 진정한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국승일 총재를 비롯해 지구 임원 그리고 재전로타리안과 내빈을 모시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취임식을 기념해 지난달 22일 국내 자매 클럽인 진주비봉 로타리클럽 이취임식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재훈기자

전주연탄은행, 취약계층에 시원한 여름나기 나서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소외된 이웃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고 나섰다.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은 11일 전주시장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선풍기 130대를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 받은 선풍기는 전주연탄은행 개인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 폭염까지 더해져 유난히 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시원한 사랑의 선풍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연탄은행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사랑의 선풍기를 지원해 줌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면서 "시민들의 나눔활동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연탄은행은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탄나눔, 무료급식, 집수리, 장학금전달, 한글교실 등 나눔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정읍시, 제11회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성황리 열려

제11회 정읍시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내장상동 미소거리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공동체협회(김영수)가 주관한 행사에는 40여 개의 지역공동체와 20여 상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공동체와 미소거리 상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참여 공동체들이 그간의 활동 과정과 사례를 함께 나누고, 그 성과와 가치를 공유했다.

또 딱지치기와 투호 등 전통 놀이를 비롯해 금붕어 잡기와 가죽·도자기 공예 등의 이색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공동체의 손맛을 담은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다.

아울러 공동체들이 펼치는 인형극과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댄스, 신명 나는 난타 공연이 펼쳐져 무더운 여름 날씨

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특히, 내장상동 미소거리 상가들은 행사 기간 화장실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섰다.

이학수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멀어졌던 '우리', '공동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북동주민센터,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협약 체결

전주시 진북동 주민센터(동장 양창원)는 지난 8일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성희), 동산숲작은도서관(관장 임춘환)과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진북동 관내 주민의 교육 및 문화 복지 수요와 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협력 △복지 및 문화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복지 협력 △주민을 위한 도서관 전반적인 시설 개방 등이다.

동산숲교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동산숲작은도서관은 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내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참여와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내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동네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진북동 양창원 동장은 "진북동 관내로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 체험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11일 관내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체험을 실시했다.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체험은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길터주기 체험 및 도로상황에 맞는 길터주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긴급상황 시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장수 서장은 "한 시민의 배려와 양보로 긴급상황에 놓인 요구조자의 생명을 살리고 막대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모두의 실천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지난 9일과 10일 다문화가족 4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그라미 무지개캠프'라는 주제로 농업에 대해서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평선 풍년댄스, 가족간 소통, 진로 및 부모교육, 메타버스로 경험해보는 농업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농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정재호 본부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림과 동시에 보다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장수골프리조트, 아동 위한 1004박스 기부

장수골프리조트(대표 이용규)는 11일 장수군청을 방문해 관내 아동들을 위한 1004박스 200개(6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장수골프리조트는 장수군에 위치한 레저시설로, 모기업인 ㈜인탑스의 주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2021년부터 행복나눔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선풍기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물품(1004박스)은 치약, 샴푸등 12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탁된 물품은 아동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100세대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용규 대표는 "지치기 쉬운 한여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나눔 실천을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활동을 펼치며 더 많은 사랑을 환원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정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내 취약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기회의 보장, 문제의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0~만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중화산2동, 옥상 텃밭 하늘농장 체험활동 추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도시농업공동체 꽃두렁 마을(대표 전덕일)은 11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함께하는 하늘농장 체험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교육을 통해 자연과 우리 식재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코로나 19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아이들의 정서적 치유와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화산2동 관내 A지역아동센터 아동 12명이 참석했으며, '꽃두렁 마을' 전덕일 대표의 옥상 텃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추, 상추따기 체험까지 이뤄져 참석한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김모(12세) 어린이는 "건물 옥상에 텃밭을 가꿔 채소를 따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멋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곳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중화산2동 꽃두렁 마을 전덕일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나눔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